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숨쉬고 거리를 활보하고 관계를 갖고 감정을 교류하는, 그래서 그 구석 구석은 사람들의 발자국과 기억과 사랑의 흔적이 남는 곳이다. 또한 도시에는 꿈과 좌절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다. 대도시의 구조물과 사람과 구조물의 관계 등 도시 안에서 창조되는 인공의 형상은 많은 미술가들의 영감이 되어 왔다. 아마 도시와 그 도시인들이 뿜어내는 열정과 에너지, 혹은 인간의 존재감과 외로움이 이 형태들을 통해 상징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사진은 도시의 무수한 신비감과 아름다움, 동시에 적막함과 고독감을 포착해 내는 도구가 되어 왔다. 사진가이자 필름 제작자였던 Paul Strand 는 '월 스트리트'에서 건물이 자아내는 독특한 추상 형상을 화면에 담았으며, Bernd & Hilla Becher는 건물 위에 세워진 수통만을 집중적으로 화면에 담기도 했다. 한인 미술가인 김미루는 본인 스스로 누드로 분하여 버려진 건물과 폐허 된 공간을 누비며 사진과 영상 작업을 한다.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마치 깊은 심리의 내면이나 잠재의식 속을 걸어 다니는 듯한 분위기로 연출 하여 도심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민혜령은 뉴욕시의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아 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 도시인들은 바로 작가 스스로의 자화상이자 다른 사람들의 전형이기도 하다. 그는 기쁨과 절망, 사랑과 이별, 활력과 지침, 평화와 갈등, 행복과 고독 등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살아 숨쉬는 도시 곳곳을 끊임없이 탐험한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며, 지하철을 오르내리며, 건물 위에서 길 아래로 내려다 보며, 혹은 광장에 앉아서 씩 없는 사람들의 오가는 움직임 속에서 그들의 행동과 표정을 관찰한다. 그리고 연령, 성별, 직업 등이 무수하기 이를 데 없는 다양한 사람들의 독특한 상황을 순간적으로 카메라 앵글에 포착한다. 즉 거리에는 여행자, 거주자, 노동자, 어린이, 어른 등 무수한 종류의 인간 유형이 있는데 민혜령은 관찰자로서 특정 상황이나 배경 속에 벌어지는 그들의 본질적인 행동을 포착하는 것이다.

보다 특징적으로 민혜령은 도시인의 실존적 고독감을 포착하는 경향이 강한데 정적인 인물과 움직이는 인물의 대조, 관계나 존재성이 분리된 격자 구조 등의 구성적 방법을 통해 화면에 나타나는 주도적인 인물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은 무력감으로 남아 있지 않고 주변의 움직이는 사물 혹은 또 다른 인물의 움직임으로 인해 고정되거나 정체된 이미지를 벗어난다. 그 순간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며 인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표현되는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가는 전동차길, 자전거, 회전하는 롤러코스터 등 일상에서 발견되는 역동의 이미지가 종종 등장한다. 우리의 삶은 소용돌이와 격정 속에서 관계가 만들어내고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다.

민혜령의 사진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도시인의 중첩된 시각을 방법론적으로도 적용했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방식과도 같다. 우리가 걷고 있다고 가정하자. 상점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나의 이미지와 배경의 이미지가 보인다. 또한 상점 속의 물건이 보인다. 동시에 나의 생각 속에는 이를 보며 연상되는 이미지와 그에 대한 나의 감정들이 중첩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억, 감정, 상상, 현실이 만나는 이 순간적인 시점. 바로 민혜령은 사진으로서 이 만남의 시점을 이루고자 한다. 타자와 자아를 교류시키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업. 이를 위해 민혜령은 자신이 찍어 온 수백 개의 이미지들을 연결하고 중첩시켜 독특한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때로는 고독한 인물 옆에 물방울이 중첩되어 우수와 슬픔의 마음이 형성되고 전차를 기다리는 여행객의 피로한 뒷모습과 전차 위 우거진 숲이 결합되어 도심의 일상에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인물의, 혹은 작가의 마음이 표현된다. 도시인의 시각은 층층이 이루어진다. 나의 본성도 겹겹이 만들어진다. 민혜령의 사진에는 무슨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은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그 감정이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생의 순간 순간은 무수한 연기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삶은 찰나의 중첩이다. 작가의 과거의 시각과 기억과 중첩, 찰나의 우연한 만남, 이를 통해 카메라의 고정된 순간이 새로운 순간으로 재구성된다.